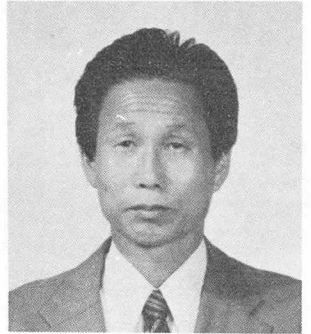


생산비 절감을

위한 합리적인

양돈경영 방법 (I)



정 숙 근
(축산시험장 양돈과장)

1. 머리말

합리적인 양돈경영이란, 바꾸어말하면 이윤극대화를 위한 양돈업 경영기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합리성은 여러가지 각도에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현재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방법이 국내외를 통하여 일반화 된 방법이며, 이같은 방법이 최고 이윤과 결부되어 있다면 큰 문제가 되어질 수는 없는 것이 논리일 것이다.

수주일전에 당국의 주최하에 “돈육수출확대 협의회의”가 있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수출업자 측에서 제시한 몇가지 문제점 중에는 육돈의 생산자가 실천하여 주어야 만이 해결될 수 있는 큰 과제를 지적하여 주었다.

평소에도 여러차례 시정되어지길 희망하였고 국가적면에서나 개인적인 생산효율면으로 보아 하루 빨리 개선되어져야할 몇가지 문제점 중의 하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돼지고기 중에서 등심과 어깨등심 및 안심살은 일본에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중에 출하되고 있는 돼지는 대부분 80kg이 전에 도살되고 있기 때문에 체중이 너무나 작아

서 일본국의 수입상품 규격에 미달하여 수출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규격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100kg이상 길러서 도살해야 하는데 현재 시중에서 도살되는 것 중 100kg이상인것은 20%도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게다가 수돼지는 거세하지 않고 기르기 때문에 수출대상이 될 수도 없으니 수돼지는 모두 거세하고 육돈은 100kg이상 길러서 출하하도록 지도하여 달라라는 것이다.

2. 우리 양돈의 문제점 및 대책

1) 출하체중과 도체단가와와의 관계

육돈의 출하체중은 90kg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현재 우리나라 도매시장에 출하되고 있는 것의 평균체중이 80kg 미만이다.

그러나 이웃나라 일본, 자유중국 및 미국 등 대부분 나라에서는 출하체중을 100kg~105kg으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르고 있는 돼지의 품종 및 자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80kg이상 기르지 못하고 출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돼지도 미국이나 유럽지방에서 도입된 같은 품종이요, 계통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이유가 없다.

종래에 중형종인 버크셔나 중요크셔종을 위주

로 기르던 시대라면 출하체중을 90kg 이상 올린다는 것이 무리하였을런지도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거의 전부가 대형종인 랜드레이스, 대요크셔, 햄프셔 및 듀록종을 위주로 기르고 있기 때문에 돼지의 자질이 나빠서 80kg에 출하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

실질적으로 100kg까지 길러도 발육 속도에는 하등의 지장없이 성장하지만 100kg까지 기르게 되면 도체의 kg당 가격이 크게 떨어진다.

그림 1은 필자가 서울의 2개 축산물 도매시장에서 육돈의 출하 및 가격동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2개년내 걸쳐 매월 1일과 15일에 출하되고 있는 육돈의 전수를 정산서에 의거 분류 집

제한 것이다. 평균 출하체중이 박피도체중으로 53kg, 생체중으로는 약 79kg정도 이며 이때에 가장 많은 두수가(20%) 출하되고 있으며, 70kg보다 체중이 커지거나 작아지게 되면 출하두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도체의 kg당 가격도 생체중 79kg정도에서 최고 가격을 나타내고 있으며, 79kg 보다 커지거나 작아짐에 따라서 점차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출하체중이 79kg에서 65kg으로 작아짐에 따라서는 도체단가에서는 약 3% 밖에 떨어지지 않으나, 79kg에서 100kg까지 커짐에 따라서는 도체의 단가는 9%가 떨어지고 있어서 단가의 구조상으로 보아서 생체중 65~80kg 사이에 출하하는 것이 유리해지는 추세이며, 80kg 이상 기르는 것을 강력히 억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으로 보아서 육돈의 평균 출하체중이 80kg이하가 되고 있는 주요 요인은 도체의 단가가 80kg정도에서 최고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는 여기에 맞추어 출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그런가하면 일본에 있어서 돼지도체의 가격동향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보는바와 같이 도체단가에서 최고 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도체중으로 63~68kg, 생체중으로는 약 97~104kg 사이 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도체중으로 15kg, 생체중으로는 무려 24kg 정도를 더 길러서 출하하고 있다.

이와같은 도체단가 동향으로 보아서 우리나라 양돈가는 100kg까지 길러서 출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일본의 경우에는 자연 100kg까지 기를 의욕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80kg에 도살하던 것을 100kg에 도살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연간 600만 두의 육돈이 도살 된다고 할때 120만두는 덜 도살하더라도 같은 물량의 돼지고기의 공급이 가능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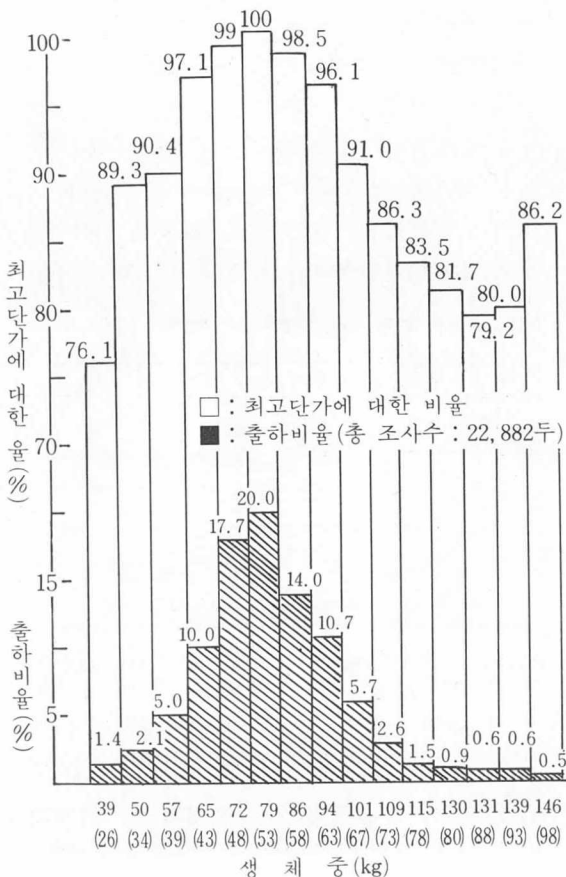


그림 1. 서울 도매시장 돼지의 생체중별 도체단가 및 출하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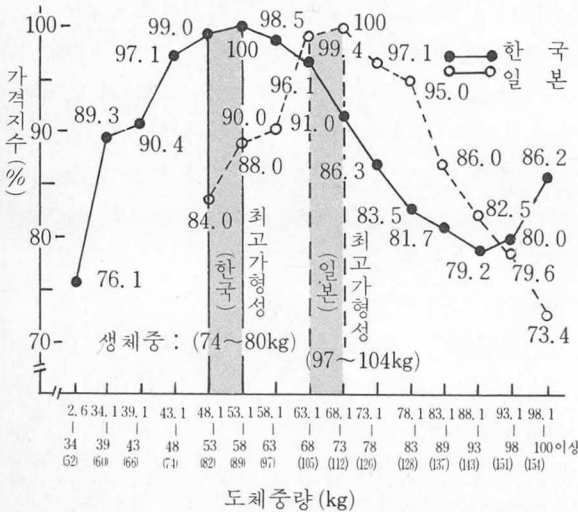


그림 2. 한국과 일본의 돼지 도체 1kg당 가격동향, ()는 생체중

여지게 된다.

이상과 같이 도체의 단가는 출하체중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양돈농가가 대형종을 기르고 있는 현 실정에서는 발육생리상으로 보아서나 실제적인 사양관리면으로 보아서도 육돈으로서 100kg까지 기르는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으며, 또한 생산된 한마리의 돼지는 발육생리상으로 보아 지장이 없는 한 최대 한계선까지 기른 후에 도살 이용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생체중 100kg이상에서 출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0kg전후에서 도체의 단가가 최고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일본과 같은 가격동향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80kg전후에 최고 값이 나오고 생산자는 최고값을 받기 위하여 80kg에 맞추어 출하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2) 출하체중, 육질 및 사료급여 체계와의 관계

육돈 생산자로서는 육돈의 육성비육 기간에

최대함으로 발육시켜 될 수 있는 한 출하일령을 단축케 하는 사육방법으로 관리하여 출하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가하면 이와같은 방법으로 길러온 돼지의 도체를 취급하여 오던 축산물 도매시장의 경매인들은 그들의 경험으로 판단하여 생체중으로 80kg이상 커짐에 따라서는 필요 이상 지방 축적량이 많아지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며, 일반적으로 생체중 80kg전후의 도체가 이상적인 것이라고 판단되기에 이르러 이때에 최고값을 주어 왔던 것이 아닌가 추리된다.

그런가하면 육돈 생산자의 육성비육을 위한 사양관리과정과 돼지 도체의 품질과의 관계를 관련시켜 생각하여 보기로 한다. 말 그대로 육성비육과정에서 돼지의 발육 생리 현상에 알맞은 사료의 종류와 급여물량을 체계적으로 공급하면서 사육하고 있는 것인가?

우선 우리나라에서 육돈이 생산되어 출하될때 까지 먹어야 할 배합사료의 종류별 생산량으로 보아서 육성비육과정의 사료물량 공급의 실태로서 돼지도체의 품질을 추리하여 보기로 한다.

표 1. 육성비육돈·배합사료 생산추이

구분	단가/kg	86.9	86.8	85.9	계
갓 낳은 돼지	660 원	3,794 kg	3,348 kg	2,117 kg	9,259 kg (2.59) %
젓먹이돼지	385	37,242	31,196	24,044	92,482 (25.91)
젓펜 돼지	242	3,391	3,093	1,721	8,205 (2.30)
육성돈	207	75,532	68,946	64,078	208,556 (58.42)
비육전기	198	7,400	7,203	7,643	22,246 (6.23)
비육후기	198	4,452	4,454	7,343	16,249 (4.55)

*괄호내는 비율임.

자료 : 주간양돈정보, 86-42 제170호 (86. 11. 5)에서 발췌.

육성비육돈이 분만되어 출하할때까지 먹어야 할 사료종류와 급여순서는 갓 낳은 돼지사료→젓먹이사료→젓떼기사료→육성사료→비육전기사료→비육후기사료 순으로 급여해야 하는 것이며, 이와같은 종류의 사료는 육돈의 발육생

리현상에 적합토록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적당량을 급여 하여야만이 정상적인 발육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서 좋은 품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배합사료의 생산량으로 육성비육돈 사료의 공급물량을 추리하여 볼때 한 마리의 돼지가 낳아서 출하될 때까지 먹었던 총 사료량의 내역은 포유 중 어렸을때 먹인 사료량이 30.8%, 육성돈 사료가 58.4%, 비육 전후 기사료를 10% 정도 먹고서 출하하게 된다. 대부분 육성비육돈 사료만을 먹여서 현재의 출하 체중 80kg까지 육성 비육하고 있다는 것으로 추리할 수 있게 되는 바, 이와같은 육성비육 방법 으로서는 출하일령을 단축할 수는 있게 될 것이나, 80kg이상 기르게 되면 지방축적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서 자연 등지방층이 3cm이상으로 두꺼워지게 마련이다.

80kg 이상이 되면 지방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축산물 도매시장의 중개인에 의거 체험하기에 이르렀고 따라서 80kg 전후에서 최고값을 평가하게 되었을 것이며, 80kg 이상이 되면 도체단가는 현저하게 떨어뜨리게 되었을 것으로 추리된다.

그러나 사양관리 방법에 따라서는 100kg인 돼지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생산되는 살코기와 지방생산량에서는 약 10%정도 (7kg)의 차이가 서로 대치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체중이 80kg 이상 크다고 해서 무조건 도체단가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은 절대로 합리적인 것이 못된다.

표 2. 등지방 두께에 따른 살코기 및 지방의 생산량

등지방두께	살코기	지방	뼈	기타
3.0 cm이하	54.1%	32.7%	10.2%	3.0%
3.01-3.3cm	49.6	38.0	9.3	3.1
3.31 cm이상	45.2	42.7	8.6	3.4

표 3. 육성비육돈의 성장단계별 급이사료의 종류와 특성

체 중	사료명	사료의 기능	사료의 특성
5-10 ^{kg}	○갓난이 사료 ○젓먹이 사료	○사료채식 혼련 ○부족유량 보충	양질단백, 고열량, 소화증대
10-20	○젓메기 사료	○각기관의 발육촉진	고단백, 고열량, 소화증대
20-40	○육성 사료	○근육과 각기관의 발육 촉진	고단백, 고열량
40-60	○비육전 기사료	○근육의 발육촉진	고단백, 고열량
60-100	○비육후 기사료	○근육발육의 유지지방축적 억제	중단백, 중열량

표 3은 육성비육돈이 성장단계별로 먹어야하는 사료 종류와 그 기능 및 특성을 표시한 것이다. 육돈이 100kg까지 비육성장하기 까지는 성장단계별 발육 생리에 부합된 사료를 먹었을때 좋은 품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농가에서는 생체중 20kg 전후의 자돈을 구입하여 육성비육에 들어가는 사람은 갓난 돼지사료, 젓먹이 돼지사료, 젓편 돼지사료는 먹일 기회가 없이 바로 육성돈사료를 먹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육성돈 사료는 생체중 약 40kg까지만 먹고 그후 60kg까지는 비육전기 사료를 먹여야 하며 60kg 이후에는 반드시 중단백, 중열량 비육후기사료를 먹여서 지방 생산량을 억제하고 살코기의 증가 속도를 유지케 하면서 육질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